

지역 소식통

고창문화도시 치유문화 축제 내달 3일부터 열려

고창문화관광재단과 고창문화도시센터에서 주최·주관하는 '2023 고창문화도시 치유문화축제'가 오는 11월 3일~5일 고창군 선운산 도립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축제는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치유문화도시로 지정(2022년 12월)되면서 고창만의 특별한 생태환경과 치유 역사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의 한마당으로 진행된다.

치유축제의 슬로건은 '고창의 스토리를 담다, 치유의 스토리를 담다'라는 '스담스담 고창'이다. 치유 정신을 생활화하는 미래 고창의 치유정신을 담은 치유문화를 브랜드화 하는 축제로 지역주민과 지역예술인들의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펼쳐진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청년창업 스마트팩토리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정읍시가 스마트팩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시설원에분야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농촌 정착과 농업경영 유도를 위한 '2024년 스마트팩 패키지 지원사업'을 11월 3일까지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복합환경관리 가능한 ICT 융복합 장비와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팩 빌딩은 실 건축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 교육을 지원한다.

공모대상은 2024년 12월 기준 만18~45세 이하 김제 스마트팩 혁신밸리의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또는 2024년 6월 수료예정자, 스마트팩 교육을 이수한 우수 청년 농업인이다. 1개소당 스마트팩 운실면적기준 2,000㎡까지 지원되며, 개소당 사업비 4억4,000만원 중 최대 3억8,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신청 서류를 갖춰 오는 11월 3일까지 사업대상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모양성제 역대 최고 흥행

역사성 · 즐거움 · 어울림 담아내며 전국서 21만여명 방문

'제50회 고창모양성제(19~23일)'가 축제 전체에 역사성 · 즐거움 · 어울림을 이끌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전국에서 21만 여명(잠정치)이 다녀가며 역대 최고의 흥행 기록을 썼다.

깊어가는 가을 밤, 모양성에서 경험하는 환상적인 쇼는 단연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다.

세계유니도시 고창의 역사가 미디어 파사드로 성벽에 연출되면서 아름다운 모양성의 특성과 축성과정을 보여줬다. 모양성 땀뚱축제 안에서 펼쳐지는 제너레이티브아트는 음성의 계절 변화에 따른 음악연출을 통해 대나무 숲에서의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했다.

특히, 올해는 행사장이 모양성-자연마당공원-노동저수지까지 확대되며 관광객들의 전체적인 체류시간이 길어졌다. 아름다운 가을 밤 고즈넉한 가을 정취를 느끼며 산책하는 달빛 기행도 큰 호응을 얻었다. 처음으로 시도했던 성내 체험프로그램



램 '모양성에 가보자' 백투더 1453'으로 관광객이 직접 과거 의상이나 소품을 빌려 입고 참여하며 12곳의 스탬프 체험을 통해 모양성의 곳곳을 체험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즐겼다.

축제 즐기기 연례대로 한층 짙어졌다. 청소년댄스페스티벌을 비롯해 MZ페스타(합합가수, 락밴드 공연) 등을 통해 10~20대가 마음껏 즐기는 모습에서 미래형 축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외에도 '고창모양성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는 주민과 관광객 1000여명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성곽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성 밝기 이후에는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강강술래 노래를 부르며 돌면서 하나 된 모습을 연출해 장관을 이뤘다.

모양성 안에는 형형색색 야간 포토존이 설치돼 모두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사진 찍기 놀이에 여념이 없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변산면 공항 봉화봉, 2024년 무장에 나눔길 공모 선정

부안군, 총 16억원 투입 무장에 데크길 · 황토길 쉽터 · 포토존 등 조성

부안군은 2024년 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나눔 사업 공모에 변산면 공항 봉화봉 무장에 나눔길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6억원(국비 9억 6,000만원, 군비 6억 4,000만원)을 투입해 빼어난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해안과 산림경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림체험학습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은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 73-

1번지 일원 공항 봉화봉 총 2km 구간 에 무장에 데크길, 황토길 쉽터, 포토존 등이 조성되며 2024년 준공 예정인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와 사업(총 사업비 60억원)인 봉화대 전망대 및 주차장 사업과 연계한 사업이다.

특히 봉화봉 무장에 나눔길은 지난 5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적벽강 · 채석강 및 격포해수욕장과 연계해 있는 부안을 대표하는 우수한 관광지로 공항 마리아 항만 크루

즈 기항지 조성 및 격포관광단지, 사투봉 꽃동산 등 다채로운 산림 · 해양 경관 제공하는 명소이다.

김기원 산림정원과는 "무장에 나눔길 사업을 통해 부안 해안을 찾는 연간 170만명의 관광객과 보행약자층에게 산림 자원을 활용한 건강 증진, 다채로운 산림 체험 · 해양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2024년 신규시책 · 2025년 국가예산 보고회 개최

부안군은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권익현 군수를 비롯한 관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 미래 100년 발전,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 타임'이라는 주제로 2024년 신규시책 및 2025년 국가예산사업 보고회를 개최 관과 미래사업으로 부안의 역동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이날 보고회는 정부 및 전북도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신규시책 151



건, 국가예산 82건, 총 233건의 사업에 대해 보고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군민 체감형 신규시책으로 △레프트빌라벨 분리, 탄소중립UP! 고창시립UP!

△생계체념자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군민 징검다리 민원대신지 운영 △부안군 로컬푸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 △변산바실길 스마트 플랫폼 △베리 굿 닥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업 등이 보고 됐으며, 부안 발전 선도 국가예산으로 △변산 서해랑길 해변탐방로 설치 △뉘시 · 여가 특구 지정 및 뉘시복합타운 조성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부안읍 정원산악형 도시 확장 사업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은 24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및 의원, 전동일 부안군체육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줄포 다목적체육센터 준공식 개최

줄포 다목적체육센터 신축 개관

부안군, 실내체육관 · 스퀘시장 등 조성... 스포츠 동호인에 단비

부안군은 24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및 의원, 전동일 부안군체육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줄포 다목적체육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줄포 다목적체육센터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총사업비 43억원을 들여 지상 1층, 연면적 980㎡ 규모로 실내체육관과 스퀘시장, 사무실, 샤워실 및 화장실로 배치하고, 소방설비, 냉 · 난방설비, 방송설비 등을 갖추어 시설 이용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읍면 7개 지역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민선 7기부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부안읍 다목적체육센터 준공에 이어 줄포

에 두 번째로 체육센터를 준공하게 된 것이다.

권익현 군수는 "줄포 다목적체육센터가 체육활동을 넘어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부안군이 민선 7기부터 추진한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반디체육센터, 부안 · 줄포 다목적체육센터와 추진 중인 실내체육관 불링장과 복합시설인 푸드앤티레포츠센터, 위도실내게이 트볼장 읍면 5개 지역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2년 연속 산불방지 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전북도가 주관하는 '2023년 봄철 산불 예방 및 대응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산불방지 홍보, 산불 대응, 산불방지 협력도 등 4개 분야, 9개 세부 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전북도는 시의 체계적인 산불감시활동과 초기진화 노력,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을 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올해 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19명을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체계적인 감시활동과 초기진화에 노력했다.

또 산불 예방 무인 방송시스템과 산불감시 무인 카메라를 활용해 산불방지 활동을 펼치고 산불 안전 공간 조성사업과 산불 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영농부산물 무상 파쇄를 지원해 올해 들어 약 20톤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성과를 냈다.

더불어 136개 마을이 참여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과 산불 예방교육 등을 추진해 태인면 상중마을과 입암면 군령마을 등 2개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되는 등 시민들의 산불 경각심을 일깨운 점도 인정받았다.

이희수 시장은 "산불은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낼 수 있는 재해인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Advertisement for 'Bokuk' (복국) featuring a polar bear in a desert landscape. Text includes: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복국'',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